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63

요한이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요한이서

2 John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1:5)

*καὶ νῦν ἐρωτῶ σε, κυρία , οὐχ ὡς ἐντολὴν
καινὴν γράφω σοι ἀλλὰ ἣν εἶχομεν ἀπ'
ἀρχῆς, ἵνα ἀγαπῶμεν ἀλλήλους.*

요한이서 차례—————

요한이서 서론.....	〈10제〉	… 279
제 1 장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15제〉	… 282

요한이서 특별 자료 차례—————

요한이서 서론 〈연구 자료〉 가현설(Docetism)	281
제 1 장 〈화보 자료〉 성 요한 교회의 터	286

제 1 장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단락구분 1-3 진리를 아는 자 / 4 진리 안에 행하는 자 / 5-6 서로 사랑하라 / 7-11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 12-13 성도의 교제

- 1 장로는 떡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 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 2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라
- 3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 4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제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 5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제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 6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제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제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받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 7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 8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 9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 10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 11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 12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 13 떡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라.

- ㉠ (1)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요한은(4절) 매우 기뻐하면서 성도들이 거짓 교훈을 조심하여(7-11절)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살 것을 당부하고 있다.
- (2) 여기서 진리 가운데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제명을 사랑으로 실천한다는 뜻(4, 6절)으로 이런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는 자이다.
- (3)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제명을 지키지 않는 자로 결국 거짓 교훈에 거하는 자인데 요한은 이런 자와 상종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10, 11절).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짓 교훈이 범람(汎濫)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제명을 실천하고 또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살전5:22).

2. ㉠ 본서신에서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장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나이가 많고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는 자라는 뜻이며, 둘째는 초대 교회 당시에 지방 교회의 중심되는 직분을 말하기도 한다(참조, 행14:21-23).
- (2) 그러나 본서신에서 말하는 장로의 의미는 사도의 직계 제자(直系弟子)로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제자들로부터 직접 이어받은 자라는 뜻이다.
- (3) 결국 여기서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밝힌 이유는 자신의 가르침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였다(참조, 요일1:1-3).
- (4)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주의 교훈을 받지 못한 장로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3)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교훈 이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 교사라고 하여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10, 11절).

9. ㉠ 본서신의 대지침을 구분하라.

- ㉠ (1) 인사말 / 1:1-3
 (2)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칭찬함 / 1:4
 (3) 서로 사랑하라 / 1:5, 6
 (4)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 1:7-11
 (5) 끝맺는 인사 / 1:12, 13

10. ㉠ 본서신의 요절은 무엇인가?

- ㉠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1:6).

연구자료

가현설(Docetism).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과 장차 육체를 입으신 채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 부인하는 자들(1:7)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주고 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에 대하여 부인하는 이단 사상 중의 하나가 곧 가현설(假現說)이다. 이 같은 사상을 취하는 자들은 주장하기를 예수께서 인간과 다름없는 모습을 지니시고 음식을 드시며 피를 흘린 채 죽으신 것 등은 다만 그와 같이 보인 환영(幻影)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현설은 그 근원을 영지주의(Gnosticism)에 두고 있다. 물질은 악한 것이며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고 하는 영지주의 사상에 입각할 때 신적 존재이신 예수가 더럽고 악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을 리 없다는 가현설이 태동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이 같은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곧 마12:48과 롬8:3이다. 대표적인 가현론자인 마르시온(Marcion)은 마12:48을 가리켜 이는 예수가 육신적 어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증거해 주는 귀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귀절은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간의 관계가 혈육의 관계보다 더 긴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 결코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또한 마르시온은 롬8:3의 '육신의 모양'이란 말을 가리켜 이는 예수가 실제적인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다만 육신과 같이 보이는 환영을 입었었음을 단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말도 재고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양'(형, 호모이오마)이란 실제적인 형상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께서 실제적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우리는 가현설을 배격해야 하겠다.

런 자들은 교회를 가르치기에 부적합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딤후 1:9; 벧전 5:2).

3. **㉠ 요한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를 사랑한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 (1) 이는 요한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 안에 있는 진리 때문이다.
 (2) 여기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며 또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는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가리킨다(참조, 서론 ㉠2).
 (3) 결국 요한과 성도들이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성도 사이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엡4:15, 16).

4. **㉠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훈(矜恤)과 평강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3절)**

- ㉠** (1) 성도들은 진리와 사랑을 행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2) 한편 공훈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며(참조, 딤후3:5), 은혜는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참조, 약1:17). 그 결과 성도들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다.
 (3)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공로와 무관하게(참조, 롬9:16)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엡2:7; 빌4:19; 요일3:18).

5. **㉠ 요한이 서신의 초두에서 수신자들과 나는 문안 인사 내용은 무엇인가? (3절)**

- ㉠** (1)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공훈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다.
 (2) 이 인사말은 바울의 서신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롬1:7; 고전1:2, 3; 딤후전1:2; 딤후후1:2), 수신자들에게 축복을 비는 말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수신자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말이다.
 (3) 한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공훈을 입어 평강을 누리며, 즉 구원을 얻는 것이다(롬3:24; 참조, ㉠4).
 (4)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물질적인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이 많이 있다.
 (5) 따라서 성도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귀한 줄로 깨달아 피차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여야 한다(참조, 롬16:16; 엡1:1-3).

6. **㉠ 요한은 무엇 때문에 심히 기뻐하였는가? (4절)**

- ㉠** (1) 요한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지키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2) 하나님께 받은 계명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데(요일4:21), 이처럼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요한은 기뻐했던 것이다.
 (3) 이와 같이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는 이를 보는 또 다른 성도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참조, 시133:1).
 (4)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도들이 화복하지 못하고 다부는 경우를 종종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써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한다(참조, 빌4:1; 살후1:1-3; 딤후1:4; 요삼1:3,4).

7. **㉠** 요한이 수신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인가? (5절)

㉠ (1) 그것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다.

(2) 여기서 요한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하여 피차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자고 당부하고 있다.

(3) 그는 사도의 위치에 있었지만 성도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몸소 실천하려는 자세로 권유하고 있다. 여기서 요한의 훌륭한 인격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4) 그러나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성도들에게 선행이나 사랑의 행위를 강요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5) 지도자들은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 양(羊) 무리의 본이 되어 술선수범(率先垂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벰전 5:2, 3).

8. **㉠**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인가? (6절)

㉠ (1)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 되는 계명은 자기의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 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막12:28-31).

(2) 또 바울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여(롬13:10) 율법 가운데 최고의 법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3) 뿐만 아니라 요한은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였고(1:5; 요일3:7, 11) 또 예수께서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하시면서(요13:34) 자신도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4) 위의 사실들을 볼 때 하나님의 계명은 곧 사랑으로서 사랑이 없이는 계명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요일3:18).

9. **㉠** 요한은 왜 수신자들이 주의 계명을 좇아 사랑하기를 당부하였는가? (7절)

㉠ (1)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이었다.

(2)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부인하는 자로서 영지주의자이다(참조, 요일 서론 ㉠10).

(3) 이들은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다.

(4)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참조, ㉠8) 굳게 결속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나가야 하였다.

(5)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속출하는 이때에 성도들은 자신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랑의 실천, 즉 주의 계명을 지켜 나가야 한다.

10. **㉠**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8절)

㉠ (1) 우리는 매사에 있어서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2) 여기서 '삼가하다'는 말은 원어로 '주의해서 보다' (빌3:2) 또는 '조심하다' (막13:9)는 뜻으로 적그리스도를 잘 관찰하여 조심하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그 외형이 참신자와 비슷하기 때문이다(참조, 마7:15).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참조, 요7:24) 행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아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르면 삼가 조심하고 그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10, 11절).

11. ㉠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8절)

- ㉠ (1)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온전한 상을 얻게 된다.
 (2) 이 말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심판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상, 즉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참조, 벰전 1:9).
 (3) 한편 이단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참조, 벰후 3:17; ㉠10).
 (4) 그렇지만 끝까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참조, 빌 2:12).

12. ㉠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는 어떤 자인가? (9절)

- ㉠ (1) 그는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敎訓)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2) 여기서 '지내쳐'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앞서가다'(참조, 막 11:9), '한계를 넘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교훈,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주의 교훈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3)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소행으로서 그들은 자신의 주장이 더 진보적이고 시대에 합당한 사상이라고 생각한다(참조, 요일 서론 ㉠10).
 (4) 오늘날 자유주의자들 가운데는 그들의 신학이 더 타당하고 시대에 맞는 사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의 교훈을 무시하는 자들이 가끔 있다(Ritschl, Harnack).
 (5)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은 시대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할 수 없으며 또 그에 대한 교훈을 시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참조, 요일 2:23).

13. ㉠ 요한은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를 어떻게 대우하라고 당부하였는가? (10절)

- ㉠ (1) 요한은 거짓 교사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人事)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2) 여기서 거짓 교사는 그리스도에 대해 올바르게 못한 교훈(참조, ㉠12)을 가지고서 교회를 두루 돌아다니는 자로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순회 전도자들이다(참조, 서론 ㉠8).
 (3) 한편 바울은 이단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일단 그들을 도와 주라고 말하는데(참조, 롬 12:20), 이것은 요한의 사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써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롬 12:21).
 (4) 이와 같이 요한이나 바울은 둘 다 방법이 다를 뿐 악에 대한 태도는 단호한 것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짓 교사를 경계하여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시 34:14; 잠 4:27; 살전 5:22).

14. ㉠ 거짓 교사에게 인사하는 것이 왜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인가? (11절)

- ㉠ (1) 여기서 '인사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쁨으로 문안하다'는 뜻으로 거짓 교사의 악한 교훈에 대해 침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이것은 간접적으로 악을 시인한 행위인데 이런 자는 결국 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3)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거짓 교사를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말도록 당부하였다(10절).
 (4) 그러므로 악에 대해 침묵하는 자는 결국 악에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단이나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배격함으로써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고전 10:21; 엡 5:6, 7; 계 18:4).

15. ㉠ 요한은 왜 수신자들과 면대(面對)하기를 원했는가? (1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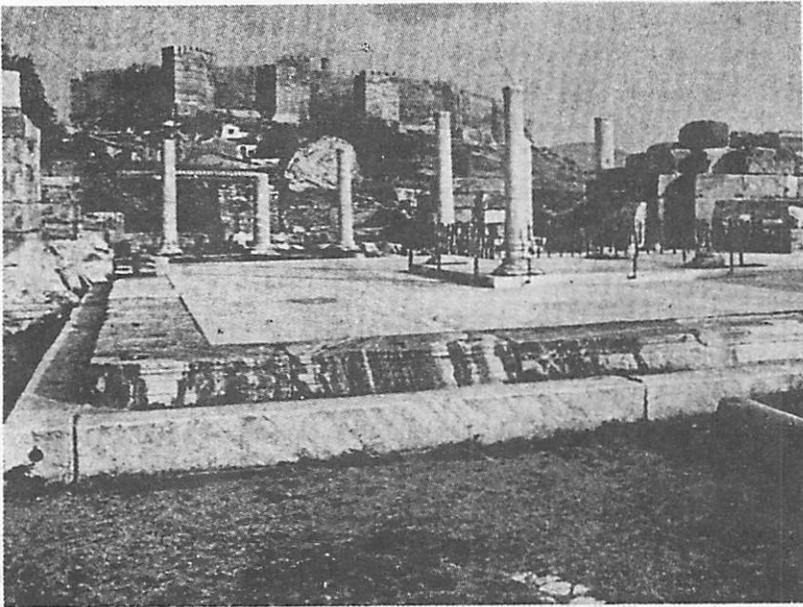
- ㉠ (1) 그것은 수신자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였다.
 (2) 요한은 서신으로써 수신자들과 교제를 나누기 보다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함으로써 성도간의 교제를 나누기 원했는데, 이것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도의 당연한 심정인 것이다.
 (3) 이처럼 사랑과 기쁨의 교제는 글로써 다 표현할 수 없으며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눔으로

로써 가능한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 친교함으로써 서로 기쁨을 나누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참조, 행2:46).

화보자료

성 요한 교회의 터. 에베소의 성 요한 교회(The Church of St. John)가 위치하였던 터로서 전승에 의하면 이 터의 지하에 사도 요한의 묘(墓)가 있었다고 한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몇 개의 원주(圓柱)만 보더라도 이 교회의 규모가 어떠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을 소아시아, 특히 에베소에서 보냈다. 그러므로 성경상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본서와 요한일서, 삼서는 모두 에베소에서 기록되어진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한편 본서의 수신자들에 대하여선 본장 1절에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로 나와 있는데 이는 어느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어이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 속한 여성도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